



사용자협의회, 금속산별 최저임금 10,730원 제시 21일 한 달 여만에 10차 교섭 재개... “사측, 금속최임 10,730원, 정년은 법률 개정 후 합의안 제시

한 달여 만에 재개한 금속노조 2026년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또다시 금속노조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내왔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지난 6월 23일 9차 중앙교섭 결렬 선언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사용자 측은 이날 5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5차 제시안을 통해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을 10,730원으로 제출했다. 지난 2025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10,420원과 비교해 310원 오른 금액이나,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통상시급 11,540원에 한참 미달한다.

정년연장 관련해서 사용자협의회는 '회사는 정년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개정 법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라는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 요구안에 대해선 기존 제시안과 같은 내용을 고집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의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은 노조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며 "초기업교섭 관련 대정부 요구안이나 인공지능(AI) 의제 등 쟁점을 빨리 정리하고 노사 모두 정년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일 것이다. 원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산별교섭 활성화 대정부 요구는 2항 '중앙교섭 참여사업장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용자협의회가 완성차를 통틀어 가장 전향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다음 교섭에는 진전된 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산업별 교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제시안은 여전히 현대·기아차 교섭 내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년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정년연장을 반영하자는 것은 협상하지 말자는 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정부를 압박하고 대기업 원청사 횡포에 맞서 싸우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며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대정부 요구>가 사용자 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차기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1차 중앙교섭을 2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다.